



◇ 빈-베를린 체임버 오케스트라 ◇
Kammerorchester Wien-Berlin

Wien-Berlin Kammerorchester

예술감독 & 악장 | 라이너 호넥
Rainer Honeck, Artistic Director and Concertmaster

연주 | 빈-베를린 체임버 오케스트라
Kammerorchester Wien-Berlin

빈-베를린 체임버 오케스트라



Program

모차르트
M. A. Mozart

교향곡 1번 E^b 장조, K.16
Symphony No. 1 in E^b Major, K.16

- I. Molto 알레그로 Molto allegro
- II. 안단테 Andante
- III. 프레스토 Presto

모차르트
W. A. Mozart

바이올린 협주곡 5번 A장조, K.219
Violin Concerto No. 5 in A Major, K.219

- I. 알레그로 아페르토 Allegro aperto
- II. 아다지오 Adagio
- III. 론도 (템포 디 미뉴에토) Rondeau (Tempo di minuetto)

Intermission

모차르트
W. A. Mozart

아이네 클라이네 나흐트무지크, K.525
Eine kleine Nachtmusik, K.525

- I. 알레그로 Allegro
- II. 로만체-안단테 Romanze-Andante
- III. 미뉴에토-알레그레토 Menuetto-Allegretto
- IV. 론도-알레그레토 Rondo-Allegretto

하이든
J. Haydn

교향곡 49번 f 단조, Hob.I:49
Symphony No. 49 in f minor, Hob.I:49

- I. 아다지오 Adagio
- II. 알레그로 디 Molto Allegro di molto
- III. 미뉴에트 에 트리오 Menuet e Trio
- IV. 프레스토 Presto

* 프로그램은 연주자의 사정에 의해 사전공지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Artist

빈-베를린 체임버 오케스트라 Kammerorchester Wien-Berlin

빈-베를린 체임버 오케스트라는 2008년 창단 이래 전례 없는 성공 가도를 달리며 클래식 음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세계 최고의 오케스트라로 불리는 두 오케스트라인 빈필하모닉과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주요 단원들로 구성된 빈-베를린 체임버 오케스트라는 앙상블만이 가진 특유의 민첩함과 유연함을 바탕으로 두 오케스트라의 장점을 결합했다.

살아있는 전설인 지휘자 사이먼 래틀이 그의 50번째 생일을 기념하기 위하여 성사한 두 오케스트라의 만남은 첫 호흡 이후 서로에게 강렬한 음악적 영감을 남기며 다음, 또 그 다음 음악적 교류로 자연스럽게 이어졌으며, 해를 거듭할수록 관객과 음악 전문가들의 더욱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다. 빈 필하모닉과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악장, 솔리스트, 수석 단원으로 구성된 오케스트라는 30여 년간 악장으로서 빈 필하모닉을 이끌고 있는 라이너 호넥이 예술감독을 맡고 있다.

빈-베를린 체임버 오케스트라는 안네 소피 무터, 요나스 카우프만, 유자 왕, 토마스 크바스토프, 유리 바슈메트, 예핌 브론프만, 앙투안 타메스티, 데니스 마추예프, 루돌프 부흐빈더, 다니엘 뮐러 쇼트, 고티에 카푸송 등 솔리스트와 함께 독보적인 음악적 해석을 선보이며 언론과 관객의 극찬을 받았으며, 창단 후 얼마 되지 않아 모스크바에서 암스테르담에 이르는 투어와 밀라노에서 헬싱키에 이르는 투어를 성공적으로 마치며 단숨에 클래식 음악계 중심으로 입지를 굳혔다. 이후 2019년에는 미국 무대에 데뷔했으며, 최근에는 안네 소피 무터와 함께 함부르크의 엘프 필하모니, 빈의 무직페라인을 비롯하여 아테네, 마드리드, 베를린 등 25개 도시에서 공연하며 활발하게 활동해오고 있다.

Roster

음악감독 & 악장	라이너 호넥	Rainer Honeck	빈 필하모닉 악장
제1바이올린	토마스 팀	Thomas Timm	베를린 필하모닉
	밀란 세테나	Milan Šetena	빈 필하모닉
	도리안 크호시	Dorian Xhoxhi	베를린 필하모닉
제2바이올린	루카스 타케시 스트라트만	Lucas Takeshi Stratmann	빈 필하모닉
	베티나 사르토리우스	Bettina Sartorius	베를린 필하모닉
	로마노 토마시니	Romano Tommasini	베를린 필하모닉
비올라	토비아스 레아	Tobias Lea	빈 필하모닉
	볼프강 탈리르즈	Wolfgang Talirz	베를린 필하모닉
	인노켄티 그라브코	Innokenti Grabko	빈 필하모닉
첼로	제바스티안 브루	Sebastian Bru	빈 필하모닉
	다비드 펜네츠도르퍼	David Pennetzdorfer	빈 필하모닉
더블베이스	헤르베르트 마이르	Herbert Mayr	빈 필하모닉
오보에	클레멘스 호락	Clemens Horak	빈 필하모닉
	헤르베르트 마데르타너	Herbert Maderthaner	빈 필하모닉
호른	볼프강 톰뵉크	Wolfgang Tomböck	빈 필하모닉
	마누엘 후버	Manuel Huber	빈 필하모닉



Interview

라이너 호넥 RAINER HONECK

라이너 호넥은 1981년 빈 슈타츠오페라 오케스트라와 빈 필하모닉의 제1바이올린 단원으로 입단했다. 입단한 지 3년 만인 1984년 빈 슈타츠오페라 오케스트라의 악장으로 임명이 되었고, 이어서 1992년에는 빈 필하모닉의 악장으로도 임명되었다.

라이너 호넥은 악장으로 다년간 활동하며 오케스트라 지휘까지 영역을 넓혀 나갔고, 말뫼 심포니 오케스트라, 요미우리 니폰 심포니 오케스트라, 나고야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마린스키 극장 오케스트라 등의 초청으로 지휘하였다.

솔리스트로서 그는 런던 로열 알버트홀, 뉴욕 카네기홀, 도쿄 산토리홀에서 연주하였고, 헤르베르트 블롬슈테트, 다니엘레 가티, 아담 피셔, 발레리 게르기예프, 다니엘 하딩, 만프레드 호넥, 마리스 안손스, 리카르도 무티, 키릴 페트렌코, 마이클 틸슨 토마스 등의 지휘로 빈 필하모닉,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피츠버그 심포니 오케스트라, 마린스키 극장 오케스트라 등과 협연하였다.

그는 오스트리아 국립은행에서 제공한 1725년산 스트라디바리우스 '샤콘느'를 연주하고 있다.

Q1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빈-베를린 체임버 오케스트라에서 15년 동안 악장으로 연주해 오고 있는 라이너 호넥입니다. 1981년에 빈 필하모닉에 제1바이올린으로 입단한 후, 현재는 악장으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오케스트라 이외에도 솔리스트로서 빈 필하모닉, 런던 심포니, 상트페테르부르크 마린스키 오케스트라, 요미우리 교향악단, 말뫼 심포니 등 여러 오케스트라와 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엔나 비르투오지, 비엔나 스트링 솔로이스츠, 앙상블 빈의 단원으로 활동하면서 실내악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는 지휘도 병행하며 상트페테르부르크 마린스키 오케스트라, 말뫼 심포니, 요미우리 교향악단, 나고야 필하모닉, 키오이 홀 체임버 오케스트라를 지휘하기도 했습니다.

Q2 다른 오케스트라 혹은 앙상블에서 연주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빈-베를린 체임버 오케스트라에서 연주하는 것의 특별한 점은 무엇인가요?

단원들은 각자 속해있는 오케스트라에서 지휘자와 함께 연주하지만, 저희 체임버 오케스트라에서는 모두가 지휘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케스트라 곡을 실내악 스타일로 연주하기 위해서는 모든 단원이 최고 수준의 기량을 발휘하고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집중력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만큼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Q3 이번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부분은 무엇인가요?

이번 공연을 위해서 저는 앙상블의 규모에 가장 적합한 오스트리아 빈의 고전 프로그램을 준비하고자 했습니다. 하이든의 초기 교향곡과 모차르트의 세레나데, 그리고 모차르트의 바이올린 협주곡 연주에 있어서 저희 앙상블은 단연 최적의 규모라고 생각합니다.

Q4 현재 빈-베를린 체임버 오케스트라와 빈 필하모닉을 모두 이끌고 계시는데요. 이와 같은 탁월한 음악성의 원천은 무엇인가요?

우선 빈 필하모닉의 단원이기도 했던 훌륭한 스승인 알프레드 슈타를 만난 것이 큰 행운이었습니다. 그 또한 과거 빈 필하모닉에서 활동했던 바이올리니스트를 사셨기 때문에 오케스트라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찍이 오케스트라에서 활동을 시작한 덕분에 카를 뵘,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 레너드 번스타인, 카를로스 클라이버 등과 같은 전설적인 지휘자들과 함께 연주할 기회를 가질 수 있던 것도 운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Q5 빈-베를린 체임버 오케스트라의 음악적 목표는 무엇인가요?

빈 필하모닉과 베를린 필하모닉의 음악적 전통이 크게 다르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두 오케스트라가 가지고 있는 공통된 스타일을 찾아 이를 더욱 살리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탁월하면서도 찬란한 에너지를 우아하면서도 노래하는 듯한 음색과 조화롭게 융합하려고 하는 것이 있겠네요.

Q6 관객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관객 여러분들, 길고도 힘들었던 팬데믹 시기를 지나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고 설레는 마음입니다. 음악적 유산을 함께 공유할 이 기회를 여러분들이 같은 마음으로 즐겨주시기를 기대합니다!



Program Note

모차르트 교향곡 1번 E^b 장조, K. 16

W. A. Mozart Symphony No. 1 in E^b Major, K. 16

오스트리아의 잘츠부르크(당시로서는 잘츠부르크 선제후국)에서 태어난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Wolfgang Amadeus Mozart, 1756~1791)는 네 살 무렵에 작곡가이자 바이올리니스트였던 아버지 레오폴드 모차르트(Leopold Mozart, 1719~1787)로부터 피아노와 바이올린을 배우면서 천재성을 드러냈다. 작곡에 대한 재능 또한 매우 일찍 시작했는데 1761년 다섯 살 무렵에 하프시코드(첼발로)을 위한 작품집 K.1(안단테 K.1a - 알레그로 K.1b,c - 미뉴에트 K.1d,e,f)이 그것이다. 자식들을 음악가로 성공시키려는 마음이 강했던 레오폴드는 아들과 딸과 함께 1762년부터 1764년 사이 유럽 투어를 돌며 아들과 딸을 많은 유명인사들 앞에 선보였는데, 모차르트는 이 생의 첫 번째 음악여행에서 바이올린과 건반악기를 위한 소나타 K.6~9를 파리(혹은 잘츠부르크)에서, K.10~15를 런던에서 작곡하는 등 직접 바이올린을 연주하기 위한(반주는 누나인 나넬 모차르트가) 작품들을 내놓았다.

많은 도시를 여행하던 모차르트는 당시 유명한 음악가들과 유행하던 작곡양식을 다양하게 접할 수 있었는데, 특히 1764년 런던에서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Johann Sebastian Bach, 1685~1750)의 아들인 요한 크리스티안 바흐(Johann Christian Bach, 1735~1782)를 만나게 되어 뜨거운 영감과 강렬한 영향을 받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모차르트는 1784년 런던에서 처음으로 교향곡들을 작곡(K.16, K.19, K.19a, K.19b는 소실)했는데 이 가운데 첫 번째 교향곡이 바로 1번 교향곡으로 기록된 K.16이다. 현악기들과 두 대의 오보에, 두 대의 혼으로 구성된 이 1번 교향곡은 I. Molto allegro, II. Andante, III. Presto의 빠른-느림-빠름 3악장 구성으로서 1765년 2월 21일 런던에서 초연되었다. 불과 8세의 어린이가 작곡했다고는 생각할 수 없는, 능숙한 화성진행과 극적인 도약, 넘쳐흐르는 인상적인 멜로디, 놀라운 서정성과 음악양식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담백 담긴 보석과도 같은 음악이다.

모차르트 바이올린 협주곡 5번 A장조, K. 219

W. A. Mozart Violin Concerto No. 5 in A Major, K. 219

1772년 8월 21일 16세의 모차르트는 지기스문트 폰 슈라텐바흐(Sigismund Graf von Schrattenbach, 1698~1771)의 뒤를 이어 잘츠부르크 대주교(Prince-Archbishopric of Salzburg)로 임명된 히어니무스 폰 콜로레도(Hieronymus Joseph Franz de Paula Graf Colloredo von Wallsee und Melz, 1732~1812)에 의해 150 플로린이라는 낮은 임금을 받는 조건으로 궁정 오케스트라의 카펠마이스터(콘서트마스터)로 임명되었다. 무난한 성격에 예술을 우대했던 전임 주교에 비해 새 주교는 권위적이고 깐깐하며 예술에 대한 애정이 없었던 탓에 모차르트와 많은 문제가 있었다. 그런 까닭에 이 당시 그는 대규모 작품은 작곡하지 못하고 작은 장소에서 연주할 수 있는 스키피오네의 꿈(Il sogno di Scipione)이나 양치기 왕(Il re pastore) 같은 소규모 오페라와 협주곡을 주로 작곡했다. 이후 몇 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바이올린과 오케스트라를 위한 콘체르탄테를 다양하게 작곡했는데, 바이올린 협주곡 B플랫 장조 K.204(1773년)와 두 대의 바이올린과 오보에, 첼로, 오케스트라를 위한 콘체르탄테 K.190(1774년), 네 개의 바이올린 협주곡들(D장조 K.211, G장조 K.216, D장조 K.218, A장조 K.219, 1775년)이 이 시기에 탄생했다. 이 외에 아다지오 K.261이나 론도 K.269 같은 단편들도 1977년 대주교와의 불화 끝에 보직에서 해임되기 전에 작곡되었다.

10대까지의 모차르트에게 있어서 바이올린이라는 악기는 분명 그가 주로 연주하던 악기였는데 잘츠부르크에서 작곡된 이

들 바이올린 협주곡이 직접 연주하기 위해 작곡한 것임은 불분명하다. 1777년 8월 아우구스부르크에서 연주회를 가진 그가 아버지에게 보낸 편지에는 요한 밥티스트 반할의 바이올린 협주곡과 더불어 자신의 스트라스부르크 협주곡(K.216인지 K.218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현재에는 K.218로 지칭하는 추세다)을 직접 지휘하며 연주해서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적혀 있다. 이것은 바이올린 연주자로서 자신의 청중 반응을 언급한 유일한 기록으로서, 이후 그는 바이올린 비르투오소로서의 길을 접고 피아노 비르투오소로서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분명한 사실은 이들 바이올린 협주곡은 모차르트 자신의 바이올린 연주가 아닌, 모차르트의 후임으로 잘츠부르크 궁정 오케스트라 카펠마이스터로 임명된 이탈리아 출신의 안토니오 브루네티(Antonio Brunetti, 1744~1786)를 비롯한 몇몇 다른 바이올리니스트들에 의해 초연 및 연주되었다는 것이다.

I. 알레그로 아페르토 Allegro aperto

1775년 10월 12일부터 12월 20일 사이에 작곡된 마지막 세 개의 바이올린 협주곡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작곡된 A장조 K.219는 모차르트가 바이올린 협주곡에서 사용하던 이탈리아 스타일의 형식을 토대로 프랑스적인 취향과 오스트리아의 색채 모두를 아우른 작품이다. aperto라는 지시가 말해주듯 ‘확실한’ 혹은 ‘당당한’ 제스처어를 요구하는 1악장은 대단히 인상적인, 마치 오페라의 서곡을 연상케 하는 오케스트라 도입부로 시작한다. 이후 곧바로 주제가 등장하지 않고 오케스트라의 악음 반주로 바이올린 솔로가 목가적인 주제를 연주하여 앞선 도입부의 분위기를 반전시켜놓는다. 아름다운 바이올린의 트레몰로 이후 2분여가 지난 뒤에야 비로소 역동적인 총주와 함께 쾌활하고 자유분방한 1주제가 등장한다. 이 유명하고 인상적인 1주제와는 대조되는 2주제와 함께 소나타 형식을 거치며 발전을 거듭한 뒤 아름다운 바이올린의 독주 카덴차와 오케스트라의 짧은 코다로 끝을 맺는다.

II. 아다지오 Adagio

E장조로서 세 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는 느린 악장은 바이올린의 아름다운 선율미와 반주의 사랑스러운 리듬감이 함께 하며 서정적인 색채와 명상적인 분위기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III. 론도 (템포 디 미뉴에토) Rondeau (Tempo di minuetto)

이 마지막 론도 악장(사실상 미뉴에트)가 바로 이 협주곡의 부제를 ‘터키풀’으로 후대에 지어지게끔 한 원인이다. 귀족적이면서도 온화한 1주제가 바이올린 솔로에 의해 주도되며 소프트한 오케스트라 반주와 함께 낭랑히 울려 퍼지다가 가운데 부분에서 등장하는 터키 스타일(alla turca)의 열정적인 악상이 바로 그것이다. 바이올린 솔로가 터키풀의 이국적인 멜로디를 맹렬히 연주하고 이어 오케스트라의 저역현이 활의 나무 부분으로 연주하는 연주법(coll’arco al roverscio)으로 오스만 군대의 타악기를 연상시킨다. 당시 유럽에서 유행하던 터키풀을 음악에 접목한 것으로서 그는 피아노 소나타 K.331의 마지막 악장, 일명 터키 행진곡에서도 터키풀을 사용한 바 있다. 이 강렬한 부분이 마무리 된 뒤 다시 원래 주제로 돌아와 음악은 조용하게 끝을 맺는다.

모차르트 아이네 클라이네 나흐트무지크, K. 525

W. A. Mozart Eine kleine Nachtmusik, K. 525

아이네 클라이네 나흐트무지크(Eine kleine Nachtmusik, 小夜曲/소야곡) K.525는 ‘작은 규모로 밤에 연주하는 음악’이라는 뜻으로서 모차르트의 방대한 작품군(群) 가운데 다양한 악기들을 위한 앙상블 음악을 지칭하는 세레나데(Serenade) 장르에 포함되는 음악이다. 1787년 8월 10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완성된 이 작품은 작곡가가 세레나데 음악을 대부분 위촉을 받아 작곡했듯이 그렇게 작곡한 것으로 추정되며 작곡동기와 초연에 관한 자세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다. 이 당시 작곡가는 오페라 돈 조반니(Don Giovanni) 가운데 2막을 작곡하고 있을 당시로서 8월 24일에는 아주 스케일이 큰 바이올린 소나타 A장조 K.526을 완성하기도 했다. 또한 그해 4월과 5월에 모차르트는 현악 5중주 C장조 K.515와 g단조 K.516을 작곡했고 4월에는 17살의 베토벤을 만나 레슨을 해주기로 약속하기도 했으며 5월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했다. 잠작하건데 이러한 많은 일들이 벌여짐에 따라 돈 조반니 완성이 지체되고 있었던 것 같다. 어찌되었던 10월에는 오페라를 끝마치고 12월에는 요제프 2세 황제의 궁정음악가로 임명됨과 동시에 딸 테레지아가 태어나는 등등 좋은 일 또한 생겼다.

이렇듯 바쁜 와중에 탄생한 아이네 클라이네 나흐트무지크는 두 대의 바이올린과 비올라, 첼로, 더블베이스로 구성된 현악 기들로만 연주되는 편성으로서 목금관이 함께 어우러지는 당시 일반적인 세레나데와는 사뭇 달랐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작품이 원래 현악 5중주를 염두에 두고 작곡했다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어찌되었던 현재에는 바이올린 파트를 더블링하고 다른 파트도 보강한 스트링 챔버 오케스트라 버전으로도 사랑받고 있다. 모차르트 자신이 작성한 카탈로그를 확인해 보면 1827년 출판될 때까지 원본이 전해지는 과정에서 1악장과 2악장 사이에 위치한 한 개의 미뉴에트 악장이 사라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런 까닭에 음악학자 알프레드 아인슈타인이 주장한 대로 피아노 소나타 B플랫 장조 K.498a의 미뉴에트 악장을 재구성한 버전이나 모차르트로부터 레슨을 받은 적이 있는 영국 작곡가 토마스 애트우드가 남긴 스케치를 토대로 완성한 크리스토퍼 호그우드 버전 등등 새로 작곡된 몇몇 버전들이 사라진 미뉴에트 악장의 대체품으로 가끔 연주, 녹음되기도 한다.

I. 알레그로 Allegro

너무나도 유명한 첫 주제가 총주로 시작되고 우아한 2주제가 뒤따른다. 이 주제들은 반복적으로 변형되며 조성도 바뀌어 등장하여 흥미진진함을 더한다.

II. 로만체-안단체 Romanze-Andante

아기자기한 주제가 짧고 자주 반복되는 것이 특징인 론도 악장으로서 2바이올린이 주제의 색채를 특별하게 만든다. 특히 단조 파트에 등장하는 속삭이는 듯한 2바이올린과 비올라가 자아내는 음색이 인상적이다.

III. 미뉴에토-알레그레토 Menuetto-Allegretto

전형적인 미뉴에트 악장으로서 주제에 등장하는 비올라 파트는 마치 관악기를 연상시킬 정도의 풍성한 음향 효과를 자아낸다.

IV. 론도-알레그레토 Rondo-Allegretto

드라마틱하면서도 물 흐르는 듯한 유려함이 비엔나 특유의 매력을 잘 살려내는 흥겨운 악장이다.

하이든 교향곡 49번 f 단조, Hob.I:49

J. Haydn Symphony No. 49 in f minor, Hob.I:49

프란츠 요제프 하이든(Franz Joseph Haydn, 1732~1809)은 모차르트에 앞서 활동한 오스트리아 출신의 작곡가로서 평생에 걸쳐 바흐에 필적할 만한 엄청난 양의 작품을 모든 음악장르를 통틀어 남겼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양의 작품을 남긴 장르가 바로 교향곡으로서 작품번호상으로 무려 108곡에 달하는 작품(분실되거나 발견되지 못한 곡들도 있다)을 남겼다. 그는 새로운 장르나 양식을 창조해낸 작곡가는 아니었지만 70년이 넘는 세월을 거치면서 끊임없이 실험과 탐색을 통해 발전의 발전을 거듭했다. 1760년 이전에는 근본적으로 요한 요제프 푸크스(Johann Joseph Fux, 1660~1741) 오스트리아의 바로크를 대표하는 작곡가 안토니오 칼다라(Antonio Caldara, 1670~1736) 같은 오스트리아-빈의 전통에 의거한 작품들을 선보였다. 1761년 에스테르하지 가문의 안톤 공(Paul II Anton, Prince Esterházy, 1711~1762)에 의해 궁정 오케스트라의 부 카펠마이스터로 취임한 이후 본격적으로 슈트룸 운트 드랑(Sturm und Drang, 질풍노도), 즉 감정과다 양식을 접하며 표현과 형식, 감정과 효과를 확장해 나아갔다. 이후 30여 년 동안 에스테르하자 궁전(Eszterháza)에서 이탈리아와 독일, 오스트리아의 여러 동시대 작곡가들의 작품을 섭렵하며 자신의 스타일과 음악의 깊이를 발전시켰다. 그리고 1790년 에스테르하지 가문과의 계약이 끝난 다음 영국 런던으로 여행을 떠나 런던 교향곡 세트를 포함한 불후의 명작들을 자신만의 고유한 양식과 어법으로 탄생시키며 유럽 최고의 국제적인 음악가로 명성을 떨치게 되었다.

이 가운데 1761년경부터 1774년 무렵까지 질풍노도 양식을 접한 시기의 하이든은 대략 60곡이 넘는 교향곡을 작곡하여 노련하면서도 새로운 교향곡 스타일을 선보였는데, 특히 아침, 낮, 저녁이라는 부제를 갖고 있는 6번부터 8번 교향곡에서 4악장 구성으로서 소나타 양식의 알레그로 악장과 느린 악장, 무곡, 빠른 악장 구성을 완성시켰다. 특히 안톤 공의 뒤를 이은, 열렬한 음악 애호가이자 에스테르하자를 건축한 니콜라우스 공(Nikolaus I, Prince Esterházy, 1714~1790)에 의해 1766년 궁정 오케스트라의 정식 카펠마이스터로 승격한 이후 다양한 악기 구성과 폭넓은 음악 형식 사용, 독주 악기의 부각 등등을 발전시켜 독창적인 내용과 악기의 표현력이 풍부한 교향곡의 범주를 본격적으로 넓혔다. 이 가운데 1768년에 작곡한 교향곡 49번은 일명 ‘수난(La passione)’이라는 부제를 갖고 있는데 같은 해에 작곡된 다른 네 개의 교향곡(26번 d단조 ‘애상’, 41번 C장조, 48번 C장조 ‘마리아 테레지아’, 59번 A장조 ‘불’)과 함께 작품의 외형적인 구조보다 내용적인 구조에 치중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오케스트라는 현악기들과 더불어 두 대의 오보에와 바순, 두 대의 혼으로 구성되어 있다.

49번 교향곡은 f단조(2악장만 F장조)의 어두운 색채가 특징으로서 백 개가 넘는 하이든의 교향곡 가운데 총 11개 밖에 없는 단조 교향곡 가운데 하나라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19세기에 붙여진 ‘수난’이라는 부제도 조성에서 비롯한 어두운 색채를 고려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그러한 만큼 구성도 독특하다. 느린 아다지오 악장으로 시작하여 알레그로 악장, 느린 미뉴에트, 빠른 피날레 악장이 뒤에 따르는 구성(50번 교향곡도 이와 동일한 구성)으로 작곡되었다. 이는 형식적으로 17세기 교회 소나타 양식(Sonata da chiesa, 느림-빠름-느림-빠름)을 계승한 것으로서 부제의 의미에서 기인한 바로크적이면서도 교회적인 신성함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고, 내용적으로는 슈트룸 운트 드랑 특유의 드라마틱함과 열정을 표현하고자 슬픔이 가득한 느린 악장을 앞에 두어 잇따르는 알레그로 악장에서 그 열정의 에너지를 대조적으로 극대화시키려는 의도라고 이해할 수도 있다. 종합해 보자면 이 교향곡은 하이든의 발전된 드라마로서의 극적인 플롯과 독창적인 형식 구성, 시대의 조류에 입각한 스타일리쉬한 오케스트레이션과 이례적인 단조 조성이 빚어낸 숨은 보석과도 같은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I. 아다지오 Adagio

소나타 형식의 악장. 현악군이 자아내는 애상적인 분위기가 지배적으로서 두 개의 주제로부터 작곡가의 강한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다. 끊어질 듯 사그러지다가 잠시 멈춘 뒤 다시 천천히 피어오르며 잔잔하게 진행되는 멜로디의 향연은 심리적인 드라마를 연출해 내기에 모자람이 없다.

II. 알레그로 디 몰토 Allegro di molto

바이올린의 날카로운 보잉과 트릴 같은 다양한 효과음, 질주하는 관악기의 연속음, 빠른 템포와 극적인 다이내믹이 어우러지며 특유의 스타일과 역동성을 보여준다.

III. 미뉴에트 에 트리오 Menuet e Trio

우아하면서도 어딘지 어두움이 살짝 묻어있는 듯한 미뉴에트 악장으로서 트리오 파트에서 혼과 오보에가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IV. 프레스토 Presto

3분 내외의 짧은 연주시간을 요구하는, 2악장을 능가하는 듯한 격정과 힘을 수반한 극적인 피날레로서 슈트룸 운트 드랑 양식에 의거한 빠르고 장식적이며 인상적인 표현들이 쉴 없이 질주한다.

2023 클래식 레볼루션

레너드 번스타인
LEONARD BERNSTEIN

CLASSIC REVOLUTION

Artistic Director | Andreas Ottensamer

8
August

CALENDAR

11 FRI 7:30PM	12 SAT 5PM	13 SUN 5PM	14 MON 7:30PM	15 TUE 5PM
서울시향의 드보르작 교향곡 제9번 지휘 안드레아스 오텐잠머 협연 레이 첸(Vn)	성남시향의 브람스 교향곡 제4번 지휘 이승원 협연 에스더 유(Vn) 김유빈(Ft)	한경arte필의 말러 교향곡 제4번 지휘 홍석원 협연 황수미(Sop)	체임버 뮤직 콘서트 I. 트리오 콘 브리오 코펜하겐 홍수진(Vn) 홍수경(Vc) 옌스 엘베케어(Pf)	체임버 뮤직 콘서트 II. 안드레아스 오텐잠머(CI) 윤홍천(Pf) 레이첸(Vn) 조진주(Vn) 김사라(Vla) 한재민(Vc) 조정민(Db)
17 THU 7:30PM	18 FRI 7:30PM	19 SAT 5PM	20 SUN 5PM	
인천시향의 브람스 교향곡 제1번 지휘 이병욱 협연 홍수진(Vn) 홍수경(Vc)	수원시향의 차이콥스키 교향곡 제5번 지휘 최희준 협연 신창용(Pf)	KBS교향악단의 드보르작 교향곡 제7번 지휘 지중배 협연 윤홍천(Pf)	경기필의 번스타인 심포닉 댄스 지휘 & 협연 안드레아스 오텐잠머(CI)	LOTTE CONCERT HALL

2023. 8. 11 FRI - 8. 20 SUN 롯데콘서트홀

오케스트라 콘서트 R 9만원 | S 7만원 | A 5만원 | B 3만원
실내악 콘서트 R 6만원 | S 4만원 | A 3만원

www.classicrevolution.net



공연정보확인

주최 | 롯데문화재단 | 예매 및 문의 | 롯데콘서트홀 1544.7744 www.lotteconcerthall.com | 인터파크 | YES24.COM | 티켓링크 | 11번가



브리지 첼로 소나타 d단조, H. 125

쇼팽 첼로 소나타 g단조, Op. 65

라흐마니노프 첼로 소나타 g단조, Op. 19

Sheku Kanneh-Mason & Isata Kanneh-Mason Duo Recital

세쿠 카네-메이슨 & 이사타 카네-메이슨 듀오 리사이틀

첼로 | 세쿠 카네-메이슨 | 피아노 | 이사타 카네-메이슨

2023. 12. 17 SUN 5PM 롯데콘서트홀

R 9만원 | S 7만원 | A 5만원



공연정보확인

주최 | 롯데문화재단 | 예매 및 문의 | 롯데콘서트홀 1544.7744 www.lotteconcerthall.com | 인터파크 | YES24.COM | 티켓링크 | 11번가

2023 롯데콘서트홀 기획공연

지브리 피아노 트리오 <발렌타인 콘서트>

2.11(토) 오후 7시

2023 오르간 오딧세이 I.

2.22(수) 오전 11시 30분

드레스덴 슈타츠크펠레

3.3(금) 오후 7시 30분

매일클래식 <시간과 공간> I.

4.14(금) 오후 7시 30분

2023 인 하우스 아티스트 시리즈 I. 이진상

4.22(토) 오후 7시

빈 첼로 앙상블 5+1

5.1(월) 오후 7시 30분

2023 오르간 시리즈 I. 올리비에 라트리 오르간 리사이틀

5.16(화) 오후 7시 30분

디아나 담라우 내한공연 <오페라의 왕과 여왕들>

5.18(목) 오후 7시 30분

매일클래식 <시간과 공간> II.

6.15(목) 오후 7시 30분

로테르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6.19(월) 오후 7시 30분

2023 인 하우스 아티스트 시리즈 II. 윤소영

6.23(금) 오후 7시 30분

루체른 심포니 오케스트라

6.28(수) 오후 7시 30분

빈-베를린 챔버 오케스트라

7.4(화) 오후 7시 30분

2023 오르간 오딧세이 II.

7.26(수) 오전 11시 30분

클래식 레볼루션 2023 <레너드 번스타인>

8.11(금) - 8.20(일) 공연별 상이

제2회 한국국제오르간콩쿠르

9.18(월) - 9.27(수)

매일클래식 <시간과 공간> III.

10.6(금) 오후 7시 30분

로열 콘세르트헤바우 오케스트라

11.11(토) 오후 7시 30분 / 11.12(일) 오후 5시

2023 오르간 시리즈 II. 스콧 브라더스 듀오 리사이틀

11.21(화) 오후 7시 30분

2023 인 하우스 아티스트 시리즈 III. 이진상 X 윤소영

11.29(수) 오후 7시 30분

매일클래식 <시간과 공간> IV.

12.7(목) 오후 7시 30분

아카데미아 델라논치아타

12.16(토) 오후 5시

세쿠 카네-메이슨 & 이사타카네-메이슨 듀오 리사이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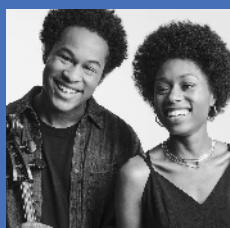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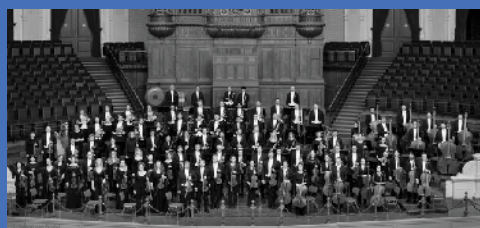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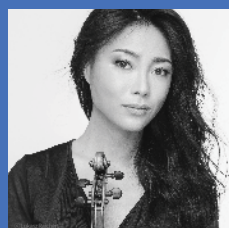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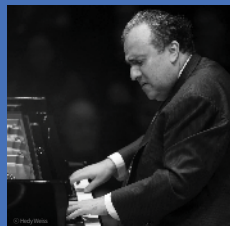
12.17(일) 오후 5시

2023 오르간 오딧세이 III.

12.20(수) 오전 11시 30분

정명훈 & 원 코리아 오케스트라 <베토벤 합창>

12.31(일) 오후 7시 30분



LOTTE
CONCERT HALL

THANK YOU

롯데문화재단은
아래 기업의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2023년
후원사

롯데케미칼 롯데쇼핑

롯데건설 롯데정밀화학 롯데렌탈

롯데물산 롯데칠성음료 롯데지주 롯데제과

7-ELEVEN 롯데글로벌로지스 롯데캐피탈 HOTEL LOTTE

롯데홈쇼핑 롯데정보통신 롯데알미늄

UNIQLO
LifeWear

LOTTE GRS Canon
캐논코리아 주식회사

대흥기획

롯데문화재단